

얼어붙은 고용시장 언제나 별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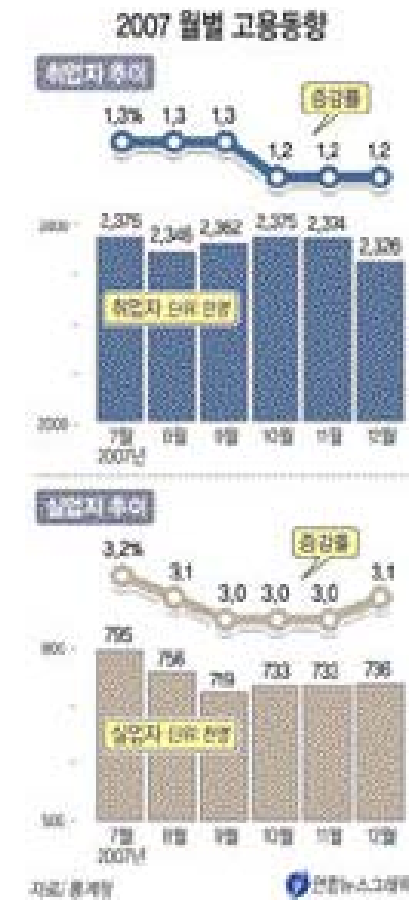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 30만명 못넘어 20, 30대 고용 감소 ... 청년층 실업난 가중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에 미달하면서 고용시장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343만3천명으로 2006년에 비해 28만2천명(1.2%)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30만개에 미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고용정책이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03년 3만명 감소에서 2004년 41만8천명 증가로 전환됐지만 2005년 29만9천명, 2006년 29만5천명 이어 2007년에도 28만2천명으로 30만명을 하회한 것은 물론, 증가폭마저 축소되고 있다.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40대(7만7천명), 50대(25만8천명), 60대 이상(11만5천명) 등 40대 이상에서는 전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20대(-6만

9천명), 30대(-10만명)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청년층 취업난을 반영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만9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만1천명), 건설업(1만5천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농림어업(-5만8천명), 제조업(-4만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3만7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해 고용률은 2006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59.8%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업자는 78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4천명(-5.4%) 감소했고, 실업률도 3.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보다는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7%대를 기록했고 나머지 연령층은 30대 3.2%, 40대

2.0%, 50대 2.1%, 60대 이상 1.4%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2천421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23만8천명(1.0%) 증가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대비 17만1천명(1.2%) 증가한 1천495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면서 2004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천325만7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만8천명(1.2%) 늘어나, 11월의 28만1천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12월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 청년층 실업률도 7.3%로 전년 동월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12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연합뉴스



황금에 돈 몰린다

신한 '골드리쉬'·신한 실물 골드바 출시

국제 금값이 처음으로 온스당 9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연초부터 '골드뱅크'의 각광을 받는 등 금투자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대고객 금 고시 가격'은 작년 말 온스(31.1035g)당 841.80달러에서 이날 현재 897.41달러로 불과 보름 만에 55.61달러(6.6%)나 뛰어올랐다. 실제로 금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는 투자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계좌를 이용해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골드리쉬'의 경우 올 들어 보름간 거래량이 1천890kg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이 963kg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이 4배나 급증한 셈이다. 실물인 골드바를 판매하는 기업은행의 경우 평소 매출 평균 14kg 정도가 판매되던 것이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월 평균 30kg 정도가 팔리고 있다. 금값이 뛰면서 금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 위축이 '고용없는 성장' 부추겨

韓銀 보고서, 연 4~5% 성장 불구 일자리는 안늘어

해외소비 지출 급속 늘고 국내 소비는 극심한 부진

우리나라 경제가 연 4~5%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국내 소비의 부진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원인은 기술적 요인보다는 소비, 투자 등 국내 최종 수요가 위축되고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06년중

우리나라 전(全)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7.4%에 불과했다. 연 평균 0.6% 증가에 그친 셈이다. 이 기간에 국내 소비·투자는 우리나라의 고용을 35.0%포인트 증가시켰고 수출도 26.9%포인트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술변화와 취업유발계수(10억 원 투자시 고용인원) 하락 등 기술적인 요인은 고용을 52.7%포인트 감소시켰고, 수입대체 효과 역시 고용을 1.8%포인트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화해 고용 변동 요

인을 분석한 결과는 최근 들어서는 고용 증가에 대한 소비·투자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1995~2000년 16.7%포인트에서 2003~2006년 3.5%포인트로 크게 감소했지만, 기술적 요인의 기여도는 1995~2000년 -28.3%포인트에서 2003~2006년 -4.4%포인트로 큰 폭으로 둔화했다. 한편은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위축에 따른 것으로 소비, 특히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내소비 지출이 부진한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측면도 있지만 해외소비 지출이 급속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더 떨어질까 반등할까...마음 졸인 투자자

코스피지수 5일 연속 급락...1700선도 위협

美 금리·경기부양책 확인 후 매입 결정을

16일 코스피지수가 5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일각에서 투매까지 나타나는 등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지수가 시장에서 지지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1,700선에 바짝 다가서자 매도보다는 저가매수 가능성을 고심해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시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주를 고비를 넘기면 의미있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주후반들이 다음주를 노리는 전략을 권하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미 증시 안정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단기적으로 주 후반 반등 가능 - 다음주를 노리는 전략도 가능" =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인 만큼 이후 주가동향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삼성증권 김성봉 연구위원은 이날 시황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경제지표와 미국 금융기관들의 실적발표가 진행되고 나면 월말에 발표된 미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미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현 시점에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장 참여는 미 증시 안정 확인 후 늦지 않다" = 그러나 미국시장의 안정과 그에 따른 반등수준을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우증권 조재훈 투자분석부장은 "현재 시장은 균형감을 잃고 지나치게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주 미국 투자는



코스피지수가 미국 증시의 추락 속에 1조원이 넘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물에 밀려 16일 41.98포인트(2.40%) 떨어진 1,704.97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행 등 실적발표와 이날 말미 금리결정과 경기부양책 발표 등 확인해 아할 사안들이 남아 있으며 거기서 의미있는 반등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서서히 저가매수에 나서 때가 다가오고는 있지만 시장이 한두 차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분할매수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단체여행객 세관 신고 입국할 때 한번만으로

단체여행객은 입국할 때만 세관신고서를 하면 되고 여행사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무역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신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6일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무역환경과 동북아 물류허브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사무처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등에 관한 고시 등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단체 여행자의 경우 입출국할 때 이중으로 했던 세관신고 절차를 개선해 입국할 때 한 번만 일괄신고 하도록 했고 일괄신고의 주체를 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여행사 소속의 해외 여행인솔자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화 세뱃돈 세트 판매 외화은행은 설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외화 세뱃돈 10만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외화 세뱃돈 세트는 행운의 미화 2달러와 유로화·중국 위안화 등 3~5개 국가의 지폐로 구성돼 있다. 판매가는 A형(3개국 통화) 1만3천500원, B형(4개국 통화) 3만4천500원, C형(5개국 통화) 4만8천500원이다. /연합뉴스

금호·한진, 대한통운 인수 제안서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이 대한통운 인수제안서를 내고 회심의 승부수를 띄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대한통운의 인수가격과 경영계획 등이 담긴 인수제안서를 각각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18일 나온다. 금호아시아나는 "몇년간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대한통운 인수를 준비해왔다"면서 "인수 희망가를 밝힐 수 없지만 그 어느 기업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인수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우리는 종합운송물류 방면으로 한걸음만 관 기업으로서 대한통운 인수가 서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면서 "그동안 조용하게 물밑 작업을 통해 인수준비를 준비했고 이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현대

중공업과 대한통운 지분이 많은 STX도 막판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해 이번 인수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오래퍼시픽	경리/회계/마케팅/메이크업/교육/피부관리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1/18	062-231-1816
기아메디칼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19	062-952-9442
신한유화	2008년 연구개발직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1	062-944-8485
지피씨 주식회사	정규직 사무관리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21	062-350-8170
화인코리아	(식품연구개발/생산관리)2008년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2	061-330-4523
남해철강	2008년 정규직 영업간부(서울/광주)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1/22	062-943-8676
HNR	SK텔레콤 서버지사 법인영업 지원팀 남직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22	062-529-2671
광주광역시정보센터	2008년 상반기 정규직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2	062-224-8564
한맥케미칼	입체 납품차량 운행 및 상/하차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2	061-393-8141
그린토건	일반사무업무 경력직 여사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22	062-942-4080
디지인이지	맥(IMAC)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3	062-654-3003
대명하이텍	사무직 총무, 경리회계 남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3	062-953-6444
영정보기술광주지점	영업/기술영업/산업체 특수영업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25	062-372-2219
넥스타이어광주지점	정규직 신입/경력 영업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6	062-956-3547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소업체 상반기 채용 업체당 평균 3.2명 꼴

중소제조업체는 올 상반기 업체당 평균 3.2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체 252개사를 대상으로 인력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58.7%가 '올 상반기에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없다'는 기업은 23.8%, '미정 또는 유동적'인 곳은 17.5%였다. 채용계획을 밝힌 기업들의 채용규모는 업체당 평균 3.2명이었다. 업체당 평균 인원(53.5명)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비수도권이 3.6명으로 수도권(2.6명)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일반기업, 벤처기업 각각 3.2명 정도 같았다. 직종별로는 생산직(2.4명)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고, 사무직(0.5명), 연구·개발직(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체 86.5%가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답한 가운데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주로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52.3%), '임금 및 복리후생이 구직자의 희망과 불일치해서'(47.7%)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고용증대를 위해 기업들은 정부가 '고용 때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강화'(51.6%)하고 '근로환경과 복지개선을 지원'(51.6%)해줄 것을 가장 많이 원했다. /연합뉴스